



미디어디자인스튜디오  
Media Design Studio

200912707 김혜주

# 밥 한끼의 인연

## 기획 의도

가정교육 중에서도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말이 있듯이 밥의 힘은 크다.

하지만 어른이 될수록,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제대로 된 밥을 챙겨 먹는 식사를 하기 어려워진다.

1인 가구가 급증하는 요즘,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식욕을 충족시키면서도 사회생활에서 받은 스트레스나 인간관계 단절에서 오는 외로움을 덜어주는 타인과 밥을 먹는 행위에 주목한다.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흔하게 하는 인사말인 “우리 언제 밥 한번 먹자”를 실천하는 인터렉션 작업을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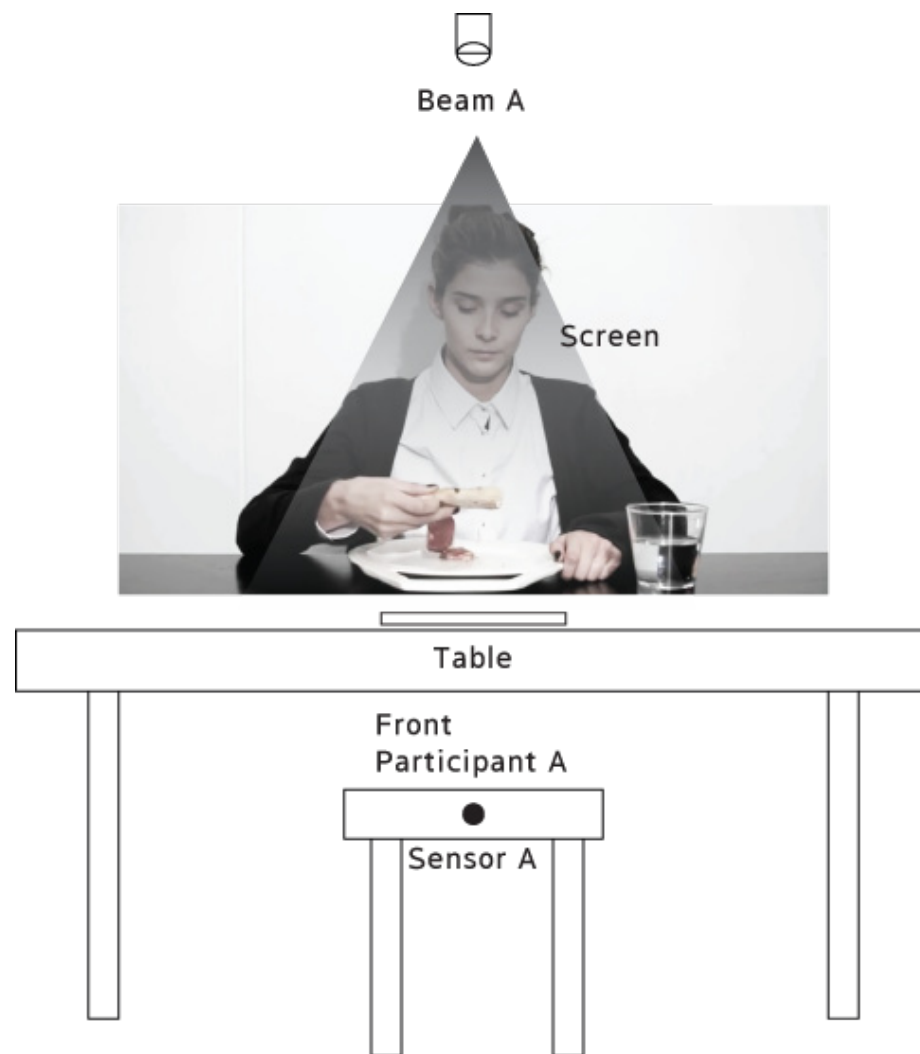


## 기획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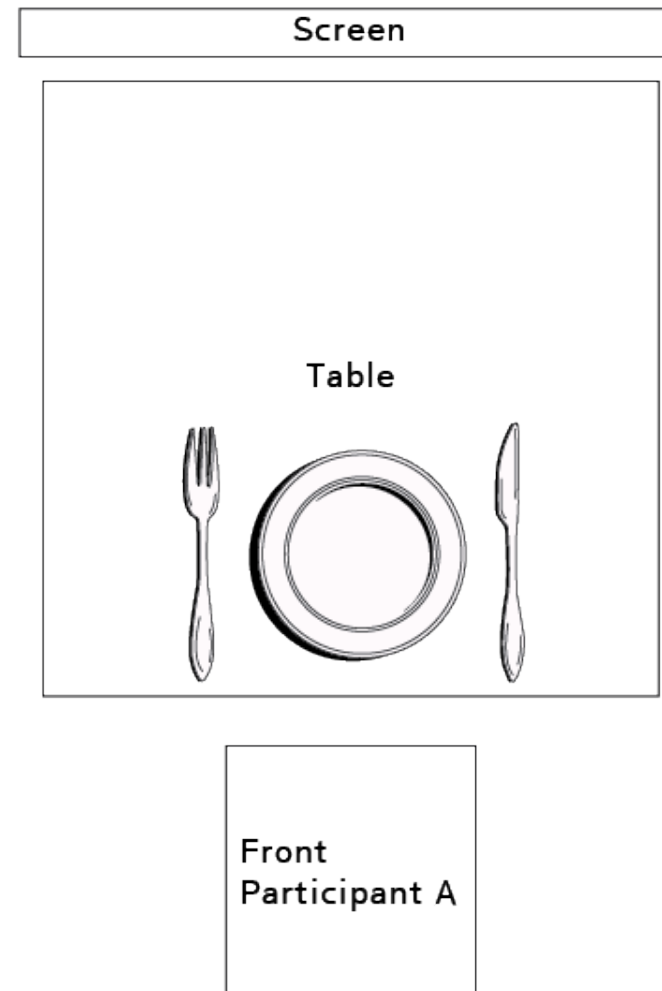
먹는 행위가 단지 먹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는 명제에서 시작된 이 프로젝트는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것,  
대수롭지 않게 생각 될 수 있는 그 순간에 대한 소중함을 사람들로 하여금 되새기고 아직은 잘 모르지만  
어쩌면 친구가 될지도 모르는 인연의 시작을 선물하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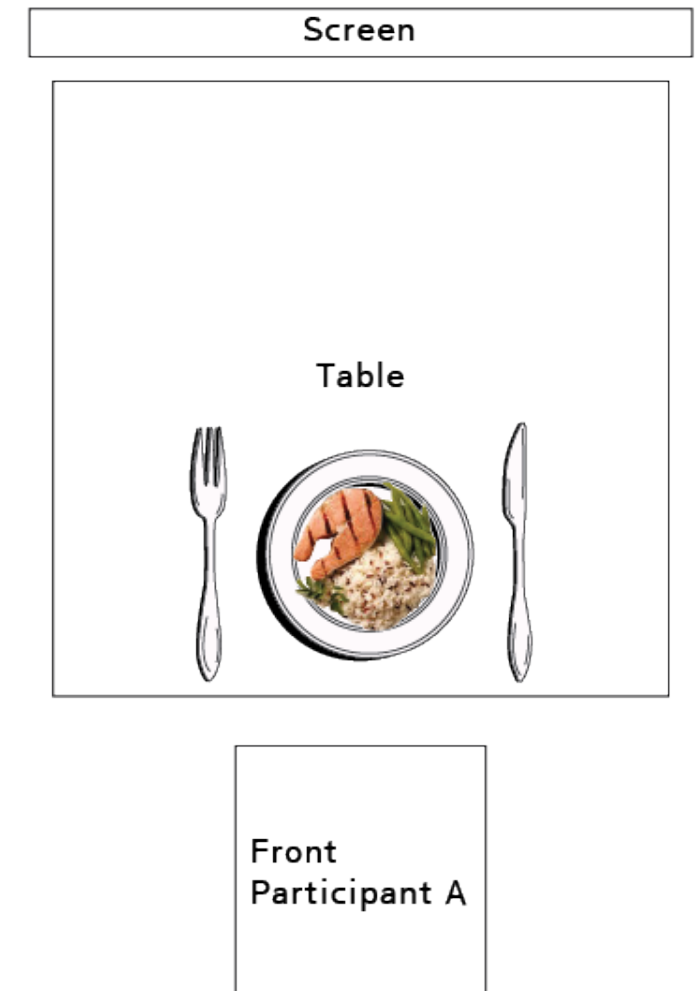
# 전시 구성 시안



Beam OF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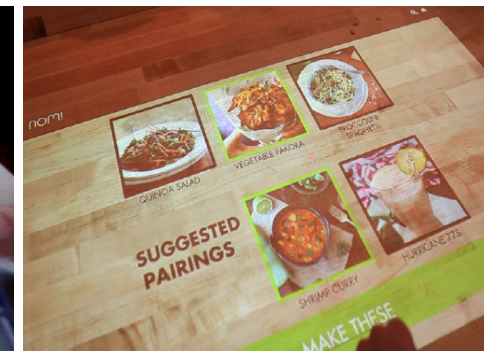


Beam 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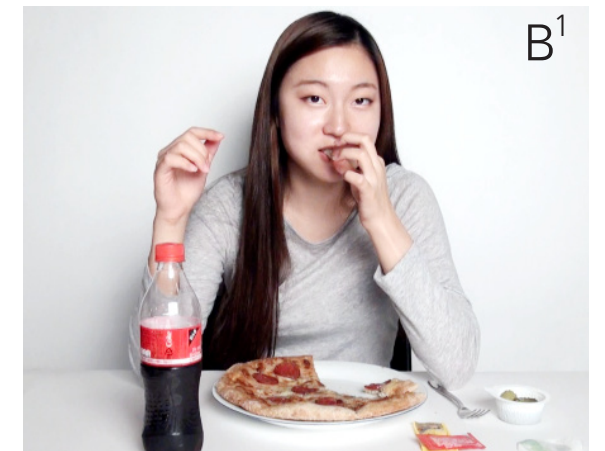
# 이미지



예시)



## 영상 순서



A : 참여자가 없는 경우

B-B<sup>4</sup> : 참여자가 의자에 앉게 되는 경우 (총 5가지 음식 영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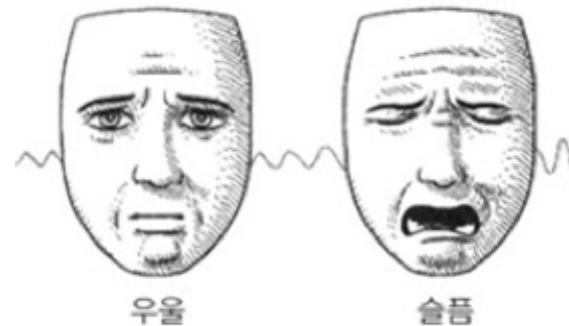
순차적으로 재생되는 구조. (만약 B의 영상이 끝났는데도 참여자가 계속 있다면 다음 순서의 음식영상으로 바로 재생된다.)

A -> B-B<sup>4</sup> -> A

## 표현 방법

### A : 참여자가 없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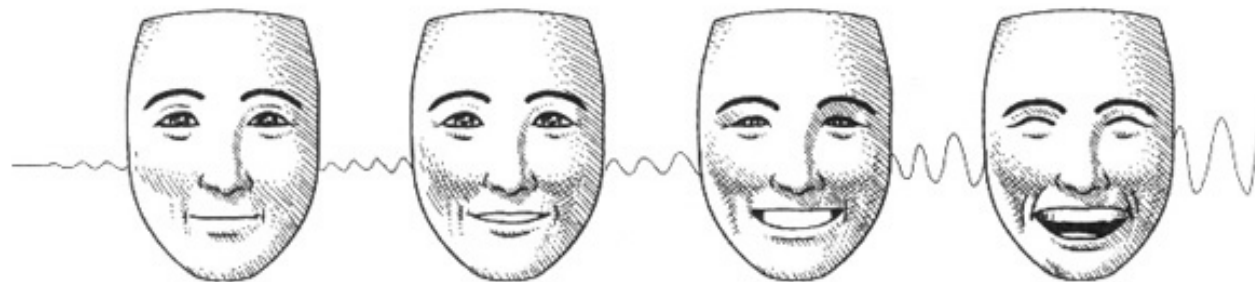
ex) 음식이 없다. 시계를 본다. 턱을 괴고 멍하니 앞을 본다 핸드폰을 확인한다 무표정, 우울한 표정 혹은 설레임에 미소짓는.



### B-B4 : 참여자가 의자에 앉게 되는 경우 (총 5가지 음식 영상)

- 굳이 대화를 하지 않아도 되며 표정과 모션, 감탄사로 상대방이 있어서 맛있는 식사가 된다는 것을 표현.

ex)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기. “음.이거 맛있다” “배고팠어” 등... 천천히 여유롭게 아주 맛있게 먹는다.



## 소품 및 장비

아두이노

센서

프로젝터

스크린

2인용 식탁 (IKEA)

의자 (IKEA)



or





## 추후 계획

10월 10일 : 영상 작업 완료

10월 31일 : 소품 및 장비 대여(구매) 및 시범 구동

감사합니다.